

위기의 KIA... '해결사' 이종범이 있다



힘겨운 원정 경기 공·수·주 만점 활약 SK에 2연패 후 귀중한 1승...2위 지켜

KIA의 백전노장 이종범이 '난세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1위를 놓고 삼성과 힘겨투기를 했던 KIA 타이거즈는 부상 선수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로페즈·최희섭·김상현을 광주에 두고 힘겨운 원정길에 올랐었다. 두산 그리고 SK와의 원정 6연전, 중부지방의 비예보가 모두 비켜가면서 6경기를 고스란히 다 치른 KIA에서 백전 노장 이종범이 공·수·주에서 만점의 활약을 하며 '난세의 영웅'이 됐다. 원정 6연전내 우익수로 그라운드를 지킨 이종범은 팀내 최고참이지만 토타라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타선의 선두에서 서서 노장의 투혼을 발휘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종범의 방망이는 매섭

게 돌아왔다. 2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이용규와 데이비드 세터진을 구성한 이종범은 4개의 안타를 몰아치는 위업을 과시했다. 팀은 나란히 3타점을 수확한 안치홍·김주형의 활약속에 8-3으로 귀중한 승리를 챙겼다. 안치홍이 허리부상으로 결장했던 5일에는 최고령 홈런 기록도 갈아치웠다. 윤석민의 초반 난조 속에 이용규까지 무릎에 공을 맞고 교체되면서 팀 분위기가 침체됐던 6회초 1사진, 이종범은 전병두를 상대로 좌측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양준혁의 기록(40세 10개월 28일)을 갈아치우고 국내 선수 최고령(40세 11개월 21일) 홈런 타자가 됐다. 이날 팀은 2-4로 패배를 기록했지만 이종

범은 애타는 심정으로 '부상병동' KIA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값진 홈런을 선물했다. 길었던 원정 6연전의 마지막날이었던 7일에도 이종범의 불꽃 투혼은 계속됐다. 1-0의 아슬한 리드가 이어지던 3회초 1사 2루에서 이종범은 희생번트를 성공시키며 공격의 불씨를 살렸다. 나지안의 볼넷과 이범호의 2타점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KIA는 3회 3점을 뺏아내며 승기를 잡았다. 이어진 3회말 수비에서는 박재상의 2루타성 타구를 점프를 해서 잡아내며 선발투수 서재응의 5승을 지켜줬다. 5회초 2루 베이스를 훔치면서 통산 508번째 도루를 장식한 이종범은 8회에는 득점도 추가했다. 선두타자로 나선 이종범은 볼넷으로 출루에 성공한 뒤 김주형의 희생플라이때 홈에 들어오며 6-1 팀 승리에 쾌거를 박았다. SK에 2연패를 당하며 2위 자리까지 위협받던 상황에서 만행의 득직한 활약으로 KIA는 승리의 기쁨을 안고 안방으로 복귀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테니스 세계주니어선수권 우승

U-14 남자부 결승서 일본 2-1 제압



한국이 14세 이하(U-14) 선수들의 테니스 국가대항전인 2011 세계 월드주니어에서 정상에 올랐다. 백인준(안동중)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6일(현지시간) 체코 프스테예프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부 결승에서 일본을 2-1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한국이 국제테니스 연맹(ITF)이 주관하는 연령대별 테니스 국가대항전에서 우승한 것은 처음으로 이전까지는 월드주니어 7위, 2009년 16세 이하(U-16) 대회인 주니어 데이비스컵 6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월드주니어는 ITF가 U-14, U-16, U-18로 나누어 주최하는 주니어 국가대항전 중 U-14에 해당하는 대회로 남자프로테니스(ATP) 랭킹 1위 라파엘 나달(스페인)과 2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 조 윌프리드

총가(16위·프랑스) 등 상당수 정상급 선수들이 주니어 시절 이 대회 우승을 경험했다. 한국은 준결승에서 유망주 보그단 보르자를 앞세운 우승 후보 루마니아를 2-1로 꺾고 결승에 올라 일본을 만났다. 홍성찬(우천중)이 첫 번째 단식 경기에서 타카하시 유스케를 2-0(6-1 6-4)으로 꺾어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했지만 일본도 그날 풀러서지는 않았다. 아마사키 쥬페이와의 2단식에서 나선 강구건(안동중)이 첫 세트를 6-1로 이기고 2세트에도 게임스코어 5-1로 앞서다 상대의 추격을 허용하는 바람에 2, 3세트를 내리 내주고 말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지막 세번째 복식 경기에서 홍성찬-강구건 조를 투입 2-1(6-3 4-7 7-6)로 일본을 제압하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연합뉴스



마요르카섬 요트 물결

7일 스페인의 휴양지 마요르카섬 팔마에서 열린 제30회 코파델레이 보트경주대회에 참석한 요트들이 출발선에서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민혁 여수오픈테니스 우승

조민혁(국군체육부대)이 2011 여수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조민혁은 7일 여수 시립코트에서 열린 대회 8일째 남자단식 결승에서 이동규(경남시청)를 2-0(6-2 6-3)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일병 계급장을 달고 입대 후 첫 우승을 일궈낸 조민혁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

만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어 오늘처럼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기뻐했다. 조민혁은 훈련 지원금 500만원을 받았다. 전날 복식 결승에서 최재원(경남시청)과 한 조로 출전해 준우승했던 이동규는 단식에서도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어 열린 예정이던 이진아(양천구청)와 홍현휘(NH농협)의 여자단식 결승은 악천후 탓에 8일로 순연 됐다. /연합뉴스

박도규 4년 만에 우승

조니워커오픈, 태풍 영향 4라운드 취소

베테랑 박도규(41·투어스테이지)가 한 국프로골프투어(KGT) SBS투어 조니워커오픈에서 4라운드가 취소되는 바람에 4년 만에 우승컵을 차지했다. 3라운드까지 중간합계 12언더파 204타로 단독 선두에 나선 박도규는 7일 제주도 오라골프장 동·서코스(파72·7195야드)에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미파'의 영향으로 4라운드 취소됐다. 이에 따라 박도규는 2007년 7월 연우해

븐랜드 오픈 이후 4년 만이자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삼급 6천만원을 받았다. 김성운(29·동산밸브)이 2위(11언더파 205타), 홍순상(30·SK텔레콤)이 3위(9언더파 207타)에 올랐다. 박도규는 "우승을 해서 기분은 좋으나 최종라운드가 취소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4년 만에 우승이라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일이고 같이 훌륭한 경기를 펼치준 후배들에게 감사한다"고 말



했다. 선수회 회장도 맡은 박도규는 "선수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조금씩 환경이 좋아지고 있어서 5~6년 뒤에는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경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광주시 금메달 3개

광주시가 제28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7일 영주승마장에서 끝난 대통령기 승마대회에서 방시래가 마장마술 S-1클래스에서 59.541%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회인부 장애물 B클래스와 일반부 장애물 S-1 클래스에서는 각각 김병목과 박재홍이 각각 4점으로 1위에 오르며 광주는 3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비처럼 시뻘비... 7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제36회 KBS배 전국체조대회 여자 단체종합경기에서 제천여고 이유경이 평균대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계절별미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락